프런트도 한마음… 우승 도전에 힘 보탰다

KIA타이거즈 2024 정규시즌 결산

<4> 물심양면 뒷받침

선수단 해외 파견 통한 기량 발전
외국인 선수 부진·부상 빠른 대처
원정 숙소도 1인 1실 파격적 지원
가전제품·전기차 등 통 큰 선물도

올해 KIA타이거즈가 공수 양면에서 균형 잡힌 강세를 과시하며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데는 최준영 대표이사와 심재학 단장을 필두로 한 프런트의 탄탄한 뒷받침도 밑거름이 됐다.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왼쪽부터)과 심재학 단장, 최준영 대표이사, 주장 나성범이 지난달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홈경기에 앞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최 대표이사와 심 단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고 선수단은 오직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같은 지원이 9경기 차 선두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KIA는 시즌에 앞서 선수단을 해외 파견하며 기량 발전을 도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호주 프로야구(ABL) 캔버라 캐벌리에 내야수 박민과 투수 김현수, 홍원빈, 곽도규, 유승철, 김기훈을 파견했다.

2022~2023시즌 ABL에 내야수 김규성과 외야수 김석환, 투수 유지성과 이태규(현 KT위즈), 최지민을 보냈던 KIA는 질롱 코리아가 리그에서 퇴출되자 지난해 9월 심 단장이 직접 호주로 떠나 캔버라 캐벌리 구단주와 미팅을 통해 새로운 파견 루트를 개척했다.

심 단장의 적극적인 행보로 박민과 김현수가 풀 시즌, 곽도규와 김기훈, 유승철, 홍원빈이 하프 시즌을 소화하는 등 기량 향상을 위해 실전 경험을 쌓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1개월간 미국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투수 곽도규와 윤영철, 이의리, 정해영, 황동하를 파견하는 동시에 정재훈 투수 코치와 이동걸 불펜 코치를 동행시켰다. 선수들은 구속 증가와 구위 향상 등 기량 발전을 도모하고, 코치들은 지도 프로그램 습득이 목적이었다.

KIA는 시즌 중에도 선수단을 해외 파견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지난 6월부터 1개월간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스에 투수 김기훈과 김민재, 김현수, 유승철, 조대현을 파견하며 새로운 전력 구축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선수단 해외 파견은 전력이라는 결과물이 됐다. 황동하는 이의리와 윤영철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4선발로 거듭나며 공백을 완벽히 메웠고, 곽도규는 2년 차임이 믿기지 않는 제구와 구위로 필승조로 거듭났다.

김기훈은 7월 말 1군에 콜업돼 필승조와 추격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불펜 히든카드로 떠올랐고, 정해영은 1998시즌 임창용 이후 26년 만의 세이브왕에 등극했다. 박민과 유승철, 김민재 등 자원들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엿보였다.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속에서도 프런트의 힘이 빛났다.

시즌에 앞서 1선발 후보로 꼽히던 윌 크로우가 개막 2개월 만에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자 미국에서 활약하던 캠 알드레드를 데려왔고, 그럼에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자 메이저리그(MLB) 경험이 풍부한 에릭 라우어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이어 시즌 막바지 제임스 네일이 타구에 얼굴을 맞고 턱관절 골절을 당하자 시즌이 약 3주 남은 상황임에도 우승 경쟁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기 위해 대만 프로야구(CPBL)에서 에릭 스타우트를 긴급 수혈했다. 다섯 명의 외인에 투자한 자금만 무려 267만달러(약 36억4000만원·옵션 포함)다.

또 원정 숙소를 1인 1실로 사용하도록 하며 선수들이 편안한 휴식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2인 1실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밑바탕이 된 지원이었다.

프런트의 물심양면 지원에 기아 사장인 송호성 구단주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선수단 전원에 태블릿 PC를 지급했던 송 구단주는 지난 8월 KBO 리그 최연소·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를 달성한 내야수 김도영에게 전기차인 더 기아 EV3를 선물했다.

며칠 뒤 선수단 전원에게는 태블릿 PC와 무선 TV 중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통 큰 선물을 건넸고, 기아 부사장인 최 대표이사도 KBO 리그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운 투수 양현종에게 EV3를 선물하며 사기를 진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탠 이들도 있다. 김잔 전력기획팀장과 권윤민 운영1팀장, 김동혁 운영2팀장, 박지훈 프로, 전준홍 프로, 이우중 프로 등은 선수단에게 힘을 실었고 이석범 홍보팀장과 박상우 프로, 배경수 프로는 올 시즌 타이거즈가 팬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땀 흘렸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시청 1600m 혼합계주, 전국체전서 '한국신기록' 우승… 2연패

고승환·한정미·강다슬·모일환
男 400m계주팀 '대회新' 4연패
정혜림, 여자 100m 허들 은메달

'육상 명가' 광주시청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600m 혼성계주 한국신기록과 남자 400m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고승환(27)·한정미(28)·강다슬(32)·모일환(25)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15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일반부 1600m 혼성계주에서 3분25초3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 기록은 지난 2022년 전국체전에서 충북(박미나·황현우·서지현·고승환)이 세웠던 한국신기록 3분26초56을 1초22 앞당긴 한국신기록이다.

1600m 혼성 계주 금메달로 고승환은 대회 3관왕(200m·400m계주·1600m혼성계주), 모일환은 2관왕(400m·1600m 혼성계주)에 올랐다.

광주시청은 앞서 열린 남자 400m계주에서도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4연패에 성공했다.

김국영(33)·김태효(31)·고승환(27)·이재성(23)으로 구성된 광주시청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회 육상 남자일반부 400m 계주에서 38초8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시청 고승환(왼쪽부터)과 한정미, 강다슬, 모일환이 15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1600m 혼성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2연패에 성공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이 기록은 지난해 대회에서 김태효·김국영·강의빈·고승환이 세웠던 39초27을 0.41초 앞당긴 대회신기록이다.

당시 2012년 대회에서 경기도가 세운 39초59를 11년 만에 앞당겼던 광주시청은 1년 만에 다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단거리 명가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7년 만에 400m 계주 동메달(38초74)을 합작했던 김국영·이재성·고승환의 호흡에 단거리 간판 주자 김태효가 합류한 광주시청은 이번 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목표로 삼았지만 0.18초가 부족해 아쉬움을 삼켰다. 400m 계주 한국신기록은 지난해 6월 김국영·고승환·이시몬(안양시청)·이용문(서천군청)이 제5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38초68이다.

김태효가 스타트를 끊었고 김국영이 바통을 이어받아 순조롭게 출발한 광주시청은 세번째 주자 이재성이 스피드를 올려 타 시·도와 격차를 벌렸고 앵커 고승환이 독주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이규형·염종환·박시영·김시온(경북·39초75), 3위 이용문·최선재·서민준·김현탁(충남·39초89)을 따돌린 압도적인 질주였다. 4명의 선수가 400m를 100m씩 이어 달리는 400m 계주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는 종목인 계주에서 광주시청을 넘어설 팀은 없었다.

광주시청 정혜림(37)은 여자일반부 100m 허들에서 간발의 차이로 대회 9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정혜림은 결승에서 13초48을 기록, 조은주(경기 용인시청·13초44)에 뒤져 은메달을 기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1600m 혼성계주에서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을 세워 기쁘다. 선수들이 노력해온 결과다. 한정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 끝에 400m를 포기하고 계주에 초점을 맞췄는데 전략이 잘 맞았다"면서 "400m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놓친 건 정말 아쉽다.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0.18초가 부족했다. 400m계주 한국신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청은 16일 오후 3시10분 남자일반부1600m계주에서 다시 한번 기록과 메달에 도전한다. 출전 멤버는 모일환, 고승환, 이재성, 장지용이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청 윤웅진, 6연패
男 우슈 산타 56㎏급

전남도청 윤웅진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우슈 산타 56㎏급에서 6연패를 달성했다.

윤웅진은 지난 14일 경남 산청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우슈 남자일반부 산타 -56㎏급 결승에서 경남 정주용(경남체육회)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윤웅진은 지난 2017년 98회 전국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8년 99회, 2019년 100회, 2022년 103회, 2023년 104회 대회에 이어 6년 연속 이 체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0년 101회와 2023년 102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일반부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윤웅진은 1회전에서 광주 홍민오를 라운드 2-0 승으로 꺾은 뒤 8강전 충북 김주환(1-0 승)과 4강전 경북 박제현(2-0 승)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윤웅진은 결승에서 정주용에 승리하고 6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전남도청 김민수도 같은날 우슈 남일부 산타 60㎏급 결승에서 부산 강지현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2022년 103회와 2023년 104회에 이어 대회 3연패를 일궜다.

최동환 기자